

1일 1지문으로 1등급 달성 - 배인호 초격차(超格差) 국어 제공

107th

新수능 국어 최적화 기출 분석

2015학년도 9월 A형 평가원 43~45 풀이시간 :
풀이 전 이해도 : 수업 후 이해도 :

(가) 구슬이 ㉠바위에 떨어진들
 구슬이 바위에 ㉡떨어진들
 ㉢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.
 천 년을 ㉣외따로이 살아간들
 ㉤천 년을 외따로이 살아간들
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. <제6연>
 - 작자 미상, 「정석가」 -

(나) 입이 오마 하거늘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
 중문(中門) 나서 대문(大門) 나가 지방 위에 올라가 앉
 아 손을 이마에 대고 오는가 가는가 건넌 산 바라보니 거
 머희뜩* 서 있거늘 저것이 임이로구나. 버선을 벗어 품에
 품고 신 벗어 손에 쥐고 곰비임비* 임비곰비 천방지방* 지
 방천방 진 데 마른 데를 가리지 말고 워령통탕 건너가서
 정(情)앳말 하려 하고 걸눈으로 흘깃 보니 작년 칠월 사흔
 날 꺾질 벗긴 주추리 삼대*가 살뜰히도 날 속였구나.
 모처라 밤이기에 망정이지 행여나 낮이런들 남 웃길 뻔
 하였어라.
 - 작자 미상 -

* 거머희뜩: 검은빛과 흰빛이 뒤섞인 모양.
 * 곰비임비: 거뭉거뭉 앞뒤로 계속하여.
 * 천방지방: 몹시 급하게 허둥대는 모양.
 * 삼대: 삼[麻]의 줄기.

43. (가), (나)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- ① (가)는 (나)에 비해 시간과 공간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.
- ② (나)는 (가)에 비해 설의적 표현이 두드러지게 드러난다.
- ③ (가)와 (나) 모두 대조와 연쇄를 통해 생동감을 드러낸다.
- ④ (가)와 (나) 모두 걱정적 어조를 통해 고요한 분위기를 드러낸다.
- ⑤ (가)는 상황의 가정에서, (나)는 행동의 묘사에서 과장이 드러난다.

44. ㉠~㉤ 중 <보기>의 ㉡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?

— <보 기> —

고려 시대에는 민간의 노래 가운데 풍속을 교화하는 데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노래를 궁중의 악곡으로 편입시켰다. 궁중 연회에서 사랑 노래가 많이 불린 것은 사랑 노래가 잔치 분위기와 잘 어울리면서도 남녀 간의 사랑을 ㉡군신 간의 충의로 그 의미를 확장하여 수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. 민간에서 널리 불린 「정석가」가 궁중 연회의 노래로 정착된 것 역시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다.

- ① ㉠ ② ㉡ ③ ㉢ ④ ㉣ ⑤ ㉤

45. <보기>를 참고할 때, (나)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? [3점]

— <보 기> —

사설시조에서의 해학성은 독자가 화자와 거리를 두되 관용의 시선을 보내는 데서 발생한다. 화자의 착각, 실수, 급한 행동과 그로 인한 낭패가 웃음을 유발하지만 독자는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화자의 행동 이면에 있는 절실함, 진지함, 진솔함, 애뜻함, 간절함을 느끼면서 화자와 공감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.

- ① 화자가 ‘저녁밥’을 짓다가 ‘임’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혼잣말 하는 모습에서 독자는 웃음 지으면서도 그 속에 담긴 진솔함을 공감한다.
- ② 화자가 ‘임’이라 여긴 ‘거머희뜩’한 것을 향해 ‘워령통탕’ 건너가는 모습에서 독자는 웃음 지으면서도 그 속에 담긴 절실함을 공감한다.
- ③ 화자가 집 안 마당에서 서성대며 ‘건넌 산’을 느긋하게 바라보는 모습에서 독자는 웃음 지으면서도 그 속에 담긴 애뜻함을 공감한다.
- ④ 화자가 처음 보는 ‘삼대’를 ‘임’으로 착각하여 ‘임’을 원망하는 모습에서 독자는 웃음 지으면서도 그 속에 담긴 간절함을 수용한다.
- ⑤ 화자가 ‘임’이 오지 못하게 된 이유를 ‘밤’ 탓으로 돌리는 모습에서 독자는 웃음 지으면서도 그 속에 담긴 진지함을 수용한다.